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k.net

주일오전설교

신앙고백

[로마서 10:1]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관심을 두었다. 그들은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있었다. 바울은 그들의 구원을 마음에 소원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2-3절] 내가 증거하노니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으나 종교적 열심은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의(義)가 참으로 보잘것없음을 알지 못하고 단지 종교적 행위의 열심으로 의(義)를 이룰 줄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의 지식 없는 열심은 종교적 형식주의나 위선에 떨어지기 쉬울 뿐 참된 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두 종류의 의(義)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의요 다른 하나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로 이루는 의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의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 했기 때문이었다. 사람의 행위의 의는 심히 불완전하다. 이사야 64:6, “대저 우리는 다 부정(不淨)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오늘날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모르고 자기의 행위의 의를 이루려 하고 그것을 의지하려 할 때 실패할 수밖에 없다.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의를 이루셨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요 19:30)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의 대속 사역을 가리키며 그 내용은 율법의 요구를 이룬 완전한 의이다. 예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고린도전서 1:30,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救贖)함이 되셨으니.” 의가 없었던 죄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

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5-8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무덤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네게 가까와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율법을 다 행함으로 이루는 의이다. 신명기 6:23,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신명기 5:33,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언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나 사람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이루지 못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한 바 되셨다가 삼일 만에 부활하시고 의를 이루셨다. 로마서 3:21-24,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救贖)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4:25,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준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내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 성도들에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

[9-13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마음으로 믿어제(원문)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입으로 고백되어(원문)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

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 믿음의 기본적인 내용은, 예수께서 주님이신 것과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그의 기적들, 속죄, 재림 등을 믿을 수 있다. 사람이 마음으로 주를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의롭다 하심과 구원을 얻는다. 구원에 있어서 신앙고백은 필수적이다. 사람의 믿음과 신앙고백은 그리스도인의 자발적 행위이지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요 6:37, 44). 또 구원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11절),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12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13절)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을 위해 참된 믿음과 신앙고백이 중요하다.

[14-17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오?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하나님의(전통사본)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선택된 자들은 자동적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전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얻는다.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전도의 말씀을 통해 생기며 전도는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파송하심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택자들을 전도라는 수단을 통해 구원하신다. 전도와 믿음은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는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방법이다.

그러므로 전도는 교회의 최대의 사명이다. 고린도 전서 1:21,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교회는 전도자를 부르고 훈련시키고 세우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는 어디든지 파송해야 한다. 전도자의 발걸음은 귀하고 아름답다. 또 교회는 파송된 전도자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야 한다. 전도의 필요성은 말씀의 필요성이다. 전도는 말씀 전파이다. 믿음은 복음의 말씀의 바른 지식을 통해 생기기 때문이다.

[18-21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써 너희를 시키 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써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슬러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신명기와 이사야서를 인용하였다. 신명기 32:21, “그들이 하나님이라 하는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이사야 65:1,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전파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리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에 순종치 않고 그 말씀을 거슬러 행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고 그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을 불러 옛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하실 것이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의를 이루셨다. 유대인들은 행위의 의를 고집하다가 실패했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代贖)을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이것은 구약성경에 예언된 바이었다. 예레미야 23:5,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니엘 9:24,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우리는 믿음으로 의를 얻었고 이제 그 의 안에서 의를 행해야 한다.

둘째로, 사람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의롭다 하심의 구원을 얻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가 죽들과 함께 구원을 얻는다(행 16:31). 에베소서 2:8-9,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셋째로, 사람은 전도자의 전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 보냄을 받아야 전할 수 있고 전하는 자가 있어야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을 들어야 복음

을 믿을 수 있고 믿어야 구원 얻을 수 있다(14, 15절).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마가복음 16:15-16,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전도해야 한다.

주일오후설교 **하나님의 동일한 명령**

[출애굽기 6: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하므로 [강한 손을 인해]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하므로 [강한 손을 인해]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전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확대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대답하시며 해결책을 보이신다. 그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렇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해 내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은 물론 사람들의 일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은 하나님의 강한 손의 역사로 이루어질 것이다.

[2-5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본문에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라”는 말이 네 번 나온다(3, 6, 8, 29절).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계신 자’(출 3:14) 곧 영원자존자(永遠自存者)라는 뜻이라고 본다. 그는 또한 영원불변자이시며 특히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자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신을 ‘전능의 하나님’(엘 샤푸다이)으로만 알리셨고 ‘여호와’(예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 창세기 17:1에 보면, 그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여러 번 기록되어 있다(창 12:8; 13:4; 22:14).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던 것 같다.

그러면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지 않으셨다는 말씀은, 그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영원성과 불변성, 특히 언약 성취의 불변성 등

을 알리거나 체험케 하지 않았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 모세 때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여호와로 밝히 계시하셨고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행하실 자로 나타내셨다고 본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그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들의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였다.

[6-9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수고로운 노동들] 밑에서 너희를 빼어 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큰 재앙심판으로 너희를 구속(救贖)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수고로운 노동들] 밑에서 너희를 빼어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심령의 낙망함과 역새일의 흑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할 내용을 주셨다. 그는 우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자신이 ‘여호와’인 것을 강조하셨다(6, 8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세 가지이었다.

첫째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고역에서 건져내며 편 팔과 큰 심판으로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둘째로, 그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수고로운 노동들] 밑에서 너희를 빼어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 이시다.

셋째로, 그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소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들은 심령의 낙망함과 일의 흑독함 때문에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10-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

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동일한 명령을 주셨다. 하나님의 명령은 동일하였다. 비록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을지라도, “내 백성을 내어 보내라”(출 5:1)는 하나님의 바로에게 주신 명령은 변함이 없었다.

모세는 여호와 앞에 고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입이 둔하다’는 원어는 ‘할례 받지 못한 입술을 가졌다’는 말인데, ‘말에 익숙치 못하다’는 뜻이라고 본다. 모세는 여전히 힘과 용기를 가지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들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게 하실 것이다. 그 과정은 어려우나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결국 다 이루어질 것이다.

[14-27절] 그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족장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치(年齒)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탕과 므라리오, 레위의 수(壽)는 1백 37세이었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립니와 시므이요, 고탕의 아들들은 아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웃시엘이요 고탕의 수(壽)는 1백 33세이었으며, 므라리의 아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 연치(年齒)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르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르람의 수(壽)는 1백 37세이었으며, . . . [아론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은 맛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삼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고 그가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 말한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14-27절은 이스라엘의 정식 족보가 아니고 모세와 아론이 누구인지에 대한 간략한 증거라고 본다. 모세와 아론은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의 아들들 중 고탕의 아들 아르람의 아들들이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을 받았고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했고 또 그 일은 결국 다 이루어질 것이다.

[28-30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

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이까?

본문은 앞의 내용을 반복한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 앞에서 말하기를, “나는 입이 둔한 할례 받지 못한(원문)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이까?”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명령은 동일하였고 분명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고 중대한 구원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인간 사역자는 연약하였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셨고 그 명령은 항상 동일하였다. 2절, “나는 여호와로라.” 6절, “나는 여호와라.” 8절,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29절,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자신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으나 모세에게는 여호와로 계시하셨다. 그는 영원자존하신 하나님이며 언약을 변함 없이 지키는 자이다. 모세에게 주신 그의 명령은 항상 동일했다. 그것은 내 백성을 내어보내라는 것이었다. 오늘날도 시대가 많이 변하고 사람들이 속화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은 동일하다. 그것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모든 죄를 버리고 의와 선을 행하라,”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힘써 수행해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에 근거하여 그들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신다. 5절,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출애굽기 22:4-25,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라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더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신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실 것이다. 1절,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하므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6절, “내가 애굽 사람의 노역들에서 너희를 빼어 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에서 시작되었다(롬 9:18). 주께서는 친히 양들을 양우리 안으로 모으시고(요 10:16)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마 16:18).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는 그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